

# 배보다 배꼽 큰 김장비용... 78%가 양념값

### 4인가족 24만6천원 중 19만3천원 양념 구입 마른고추·새우젓 가격 급등... 광주 22만8천원

올 겨울 김장에 들어가는 부재료 가격 폭등이 심상치 않다. 마른고추와 새우젓, 소금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양념값 비중이 전체 김장 비용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마트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올해 4인가족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전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8.8% 낮아졌지만 마른고추와 새우젓, 소금 등 부재료값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4인 가족이 배추 20포기와 무 10개로 김치를 담갔을 때 비용은 24만6460

원으로 지난해 27만18원에 비해 비용이 낮아졌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2만여원 낮은 22만8720원으로 지난해 26만9320원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물량 부족으로 44%를 차지했던 배추와 무 등 김장 주재료 상품의 비중은 올해 22%로 줄었다.

반면 마른고추, 새우젓, 소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양념 비중이 78%로 증가했다.

특히 광주지역 이마트에서 판매되

는 새우젓(1kg)은 지난해 5500원에 판매됐지만 현재 1만2800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고춧가루(1kg)도 8900원에서 1만4980원으로 크게 올랐다.

주재료의 가격 하락세는 김장철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농가들이 올해에도 가격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을 배추 재배면적을 작년보다 10% 이상 늘린 데다 추석 이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배추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 배추의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1월까지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의 재배면적을 15% 가량 늘려 올해 배추 가격은 본격적인 김장철인 이번 주부터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재료는 올 김장철에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추는 6월 하순부터 지속된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데다, 강원 지역의 폐자 면적이 늘면서 출하량이 줄어 도매가격이 30~40% 올랐다.

소금 가격도 크게 올랐다. 올해 초 일본 방사능 사고 이후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확대돼 전일염은 평균 30~40%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새우젓도 젓갈용 새우 어획량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크게 올랐다.

이마트 광주 상무점 김계형 주임은 "광주 지역은 11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될 것"이라며 "올해는 배추 풍년이 들어 가격이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양념값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은행업무도 스마트폰이 대세

### 광주은행 이용자 4만3800명... 1년새 6배↑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한 분기 만에 200만 명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31일 내놓은 '3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뱅킹에 등록된 고객은 총 812만명으로 전분기 말보다 205만명(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지난해 2분기 54만명에서 3분기 136만9000명, 4분기 260만9000명, 올해 1분기 422만7000명, 2분기 607만6000명, 3분기 812만3000명으로 늘었다.

3분기 현재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 역시 전분기 말 1952만명보다 197만명(10.1%) 늘어난 2149만명으로 집계됐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해 9월 말 현

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고객 수는 전분기 말 7088만명보다 203만명(2.9%) 늘어난 7291만명을 기록했다.

하루평균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는 3천872만건으로 전분기보다 1.4%, 이용금액은 32조526억원으로 2.3% 늘었다.

이 가운데 자금이체서비스 이용건수는 477만건으로 전분기보다 3.3%, 이용금액은 32조299억원으로 2.4% 증가했다.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전분기보다 1.2% 늘어난 3천395만건을 기록했고, 전체 이용건수에서의 비중은 87.7%를 차지했다.

대출신청 이용건수는 1500건으로 전분기보다 13.0% 늘었다. 그러나 이용금액은 227억원으로 46.8% 줄었다.

광주은행의 경우 10월말 현재 스

마트폰뱅킹 가입자는 5만9343명으로 2010년말 1만1477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용자는 4만3806명으로 6916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이용건수도 172만8339건으로 지난해 32만7499건에 비해 5배 이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0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75만9218명으로 지난해 말 71만1536명에 비해 소폭 늘었으며 이용자도 26만5450명으로 24만2262건에 비해 역시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10월말 현재 기준이기에 올 말까지는 가입자나 이용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해 4월말 스마트폰뱅킹을 실시 이후 스마트폰뱅킹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이르면 오늘 타결될 듯

공정거래위원회와 3대 백화점간에 논란이 되던 백화점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문제가 이르면 1일께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백화점 업체들이 이미 제출했던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일부 보완해 오늘까지 보충자료와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자료가 제출되면 하루 이를 검토한 뒤 업계에 수용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업체들이 당초 제출했던 인하안에는 인하대상 납품업체와 수수료 인하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인하효과를 확대 선전하기 위해 일부 부적절하게 포함된 업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 업체들에 전체 납품업체 리스트와 납품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인하대상 납품업체와 수수료 인하율을 빠짐없이 리스트로 정리·보완한 인하안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공정위와 백화점 업체들은 그동안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계속해서 조율해왔는데 백화점 업체들이 이날 제출하는 방안이 최종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JB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서민 금융으로 해소 및 정부의 서민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특별기간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KJB희망드림의 달'로 정하고 우선 현재 판매중인 'KJB새희망출씨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1%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의 기존의 서민대출 상품들을 적극 홍보, 서민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KJB새희망출씨대출'은 광주·전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고객으로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간소득 100% 범위내에서 고객의 소득수준과 기존 신용대출금 규모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전액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운석 광주은행 부부장은 "광주은행의 이번 KJB희망드림의 달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내 서민금융지원을 더욱 활성화 하고 지역민과 공생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카드 사용액 9년만에 500조원 돌파

신용카드 사용이 급속히 대중화되면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카드 대란 이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상생활에서 돈을 낼 때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이미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39조1000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 카드 사용액이 493조8000억원이었는데 이 같은 신용카드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올해 500조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드대란 전년인 2002년(622조원)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요가 휴가철과 연휴가 몰려있는 하반기에 많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카드 사용액이 500조원은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3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0년 만에 4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0년 224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

돌파한 이래 2007년 398조1000억원, 2008년 445조3000억원, 2009년 454조3000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카드 사용액 증가는 카드 사용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민간최소소비지출(322조3000억원) 가운데 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0.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대로 올라섰다.

민간최소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은 1991년에는 5.6%에 불과했으며 1999년까지도 15%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05년 40.9%를 기점으로 2006년 43.4%, 2007년 45.5%, 2008년 49.7%, 2009년 52.8%, 2010년 57.0%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 11월 한달은 광주은행 '희망드림의 달'

KJB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서민 금융으로 해소 및 정부의 서민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특별기간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KJB희망드림의 달'로 정하고 우선 현재 판매중인 'KJB새희망출씨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1%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의 기존의 서민대출 상품들을 적극 홍보, 서민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KJB새희망출씨대출'은 광주·전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고객으로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간소득 100% 범위내에서 고객의 소득수준과 기존 신용대출금 규모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전액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운석 광주은행 부부장은 "광주은행의 이번 KJB희망드림의 달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내 서민금융지원을 더욱 활성화 하고 지역민과 공생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증권사 주식·펀드 수수료 줄줄이 인하

증권사들도 주식·펀드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3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주식, 지수선물, 지수옵션 매매수수료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등도 주식, 지수선물, 지수옵션 매매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주식 매매 수수료를 인하 폭은 대우증권 0.004623%포인트, 삼성증권 0.004623%포인트, 하나투자증권 0.004623% 등이다.

일부 증권사는 거래소와 예탁원의 한시적인 이벤트 때문에 주식매매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며 펀드 수수료

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조치를 이달 발표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은 신용융자 연체이자율,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매매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등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한해 수수료가 6조~9조원으로 당기 순이익의 2~3배 수준이어서 인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5회 장성 백양**

**간풍축제**

일시 \_ 2011. 11. 4. (금) ~ 11. 5. (토) 2일간

장소 \_ 국립공원 백암산·백양사 일원

주최 북아현번영회 주관 장성백양단풍제추진위원회(T.392-4422) 후원 Jangseong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ATA 한국일민여행협회